

Youngeun News

동행

7월

2025년 46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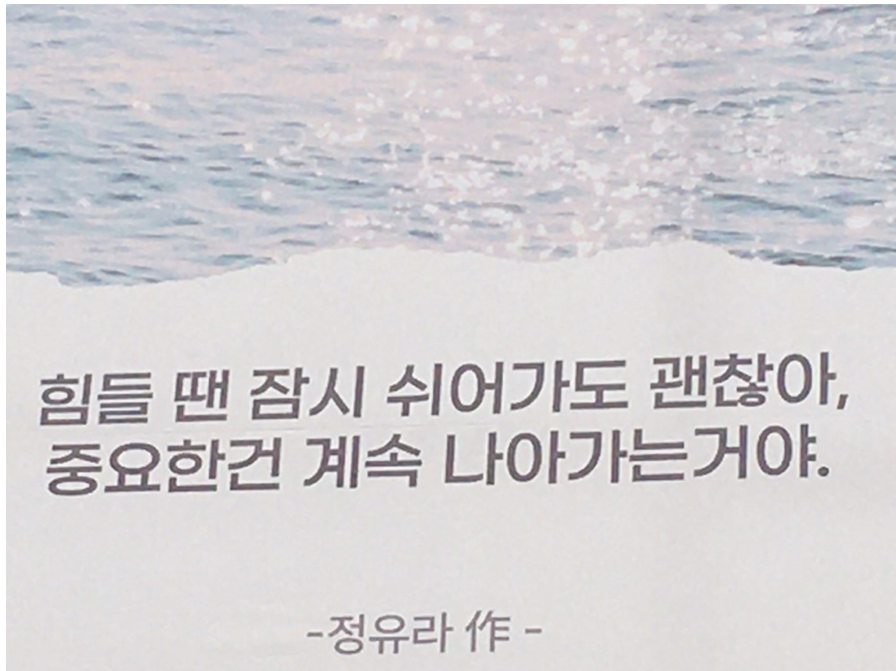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2025년의 절반을 달려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건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나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3~24) 

〈글·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7호 / 2025. 7. 6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습관의 정석, 이기적인 습관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AI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방향 / 이예리아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현순 집사 (218구역)

09 Color 찬양

음영부, 찬양의 색을 입히다 / 최정훈 집사

나에게 찬양은 나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 채성애 권사 (갈릴리찬양대)

매주 예배 찬양곡을 부르면서 느끼는 희열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 연상훈 안수집사 (호산나찬양대)

12 웹진 동행

2025년 유아부 교사, 기도로 물들어가다 /

차세원 통신원(유아부 교사)

전도특공대, 꿈자람부! / 박선민 전도사

14 영은 소식

소통의 시간이었던 <복음의 코이노니아> / 김명희 권사

영은 늘푸른학교 야외학습을 다녀와서 / 권연상 안수집사

2025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을 마치고

2025년 부흥사경회 / 김석진 장로

故 이광인 은퇴안수집사 교회장

제66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교회학교 아동부 제자학교 비전트립 / 교회학교 아동부 영등포노회

어린이대회 / 김찬영 전도사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중보기도(영은300기도용사) 사역 / 장미애 전도사

23 소감문

중보기도,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었다 / 김효영 성도

24 교회안내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습관의 정석, 이기적인 습관

(누가복음 12:13~21)

본문에는 이기적인 습관을 지닌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사가 농경 사회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형제는 자기가 더 많은 토지를 상속받으려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눅 12:15)”고 책망하십니다.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심은 이기적인 습관의 뿌리입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우선에 두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성향입니다. 타인의 필요나 공동체의 유익을 무시하고, 자신 중심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며,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반복적 행동이지만, 그 근원에는 탐심이라는 내면의 동기가 자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을 가르치시려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부자는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많은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확장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매우 흡족히 여겼고, 앞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눅 12:17~19)

그는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했고, 만족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기에 자신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는 자신의 풍성함을 결코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고, 오직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습관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습관에는 ‘영원성’이 빠져 있습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성공, 지금의 만족 등 ‘현재’ 만을 중요하게 여겨 영원의 관점을 놓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습관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치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12:20)”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쌓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쌓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사랑을 위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습관은 이러한 뜻과 전혀 거리가 먼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이기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1) 점검하기

이기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낼 때마다 질문을 통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제 중심입니까?”,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 점검하기’는 이기적인 습관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① ‘중심 점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생각과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② ‘중심 점검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결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말, 이 반응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사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2) 훈련하기

이기적인 습관은 “나만 좋으면 돼”, “내가 먼저야”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행동이 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섬김 훈련’입니다. 섬김 습관은 관계와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①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훈련되는 영성입니다. 주일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작은 이타적 선택’을 하면서 불편을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연습은 ‘나 중심의 편안함’에서 ‘이웃 중심의 배려’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훈련입니다.

② 의도적으로 ‘먼저’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의 몫이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제자 중 누구도 먼저 하지 않았던 ‘종의 일’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요13:15). 이처럼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 안에 있는 ‘나부터’의 본능을 넘는 작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기적인 습관이 아닌 사랑의 습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 이기적인 습관 버리기

이기적인 습관은 쌓아도, 모아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습관은 언젠가 무너지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 2) 의도적인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이기적인 습관보다 이타적인 습관을 갖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방향



글 | 이에리아 목사

AI¹⁾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²⁾의 중심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AI 시대에 요청되는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에 집중하여 제안한 5가지 핵심 방향입니다.

1. 말씀 중심의 영성 회복

AI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큐티와 묵상, 말씀 암송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말씀의 깊이와 내면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공동체성과 대면 신앙의 회복

AI는 효율적이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디지털 예배와 교육은 유익하지만, 현장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감과 돌봄,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AI 윤리와 인간 존엄을 가르치는 교회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시대에,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교육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AI와 디지털 기술을 섬김의 도구(나를 위한 성공의 도구가 아닌 다른 이를 돕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 등)로 쓰도록 지

도해야 합니다.

4. 다음세대를 위한 디지털 복음 전략

AI 시대의 다음세대는 디지털 세계에 익숙합니다. 메타버스, AI, 영상 등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복음 전도,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맞는 디지털 말씀 교육 콘텐츠 개발, 바울이 그리스 문화를 이용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행 17장), 오늘날 교회도 디지털 문화를 복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 섬김과 정의의 실천 공동체

AI는 많은 일을 대신하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소외, 실직 등의 문제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AI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선과 약자를 위한 도구로 전환하는 기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 AI 시대에도, 교회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AI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

¹⁾ AI -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지능이라는 뜻.

²⁾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기계, 인간, 디지털, 생물학적 시스템이 융합되는 혁신적 변화의 시대를 뜻함



글 | 김현순 집사(218구역)

모든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2014년 처음 영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김수경 집사, 두 아들 우태, 군태가 있습니다.

제 신앙의 배경엔 대학 시절 사귄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 덕택에 저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달리 제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저를 그리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어려운 일을 겪은 뒤론 제 신앙생활을 묵인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의는 아니었지만 소유하신 땅의 일부를 내어놓아 그 자리에 기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친정과 달리 남편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열성적인 성품이신 시어머니께서는 신앙 생활에도 열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결혼 이후 제 신앙생활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곳 영등포로 이사오기 전에는 교회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어려움도 모르고 즐겁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후 당산동으로 이사를 왔고 집 가까이에 있던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가족 모두 출석했습니다. 20년 남짓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교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고민했고 당시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하던 영은교회를 떠올렸

습니다. 처음 영은교회에 발을 들이던 당시엔 남편과 많은 봉사를 하기 보단 예배에 충실하자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을 지나오며 여전도회를 참석하면서 주변의 모든 분들과 교류하면서 여전도회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영은교회인으로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안정적이고 건실한 교회에서 이어온 제 신앙생활은 그만큼 순탄했습니다. 뜨거운 간구는 많지 않았으나 항상 제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느끼기에 저는 삶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때론 뜨겁게 기도하는 시어머니의 믿음이 부러웠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제 모습을 그대로,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시절 주님을 접한 이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으나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았던 그 몇 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음영부, 찬양의 색을 입히다



글 | 최정훈 집사



2025년 6월 22일은 사랑의 주일이자 음영부 헌신 예배가 있었다. 음영부에 소속된 5개 찬양대와 4개 특별단체가 헌신예배를 준비하였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색을 입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영은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음영부 헌신예배는, 음영부 부장 정재근 장로의 인도와 장이숙 권사의 기도로 진행되었고, 시편 23편을 한목소리로 올려드린 연합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분과 교역자이신 박대원 목사의 “찬양의 이유”(이사야 43:21)라는 제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후 근속시상이 있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10년 근속(3명) 류재학, 연상훈, 이범례
- 20년 근속(7명) 김대성, 김수길, 김혜경B, 노영명, 박현숙B, 채성애, 최광선

근속 시상 후에 귀엽고 힘찬 독수리 울동을 보여준 여호수아찬양대(주를 양모하는 자)의 찬양으로 특별

찬양이 시작되었고, 검은색과 빨간 넥타이의 갈렙남성합창단(웁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소울이 넘치는 시온찬양대(주의 성령 임재하면), 흰색과 검은색의 갈릴리찬양대(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귀여운 교복의 마라나타성극단(이제부터야), 검은 정장의 살롬남성중창단

(Hallelujah to the Saints), 다양한 원피스의 엘림여성중창단(예수 닮기 원해), 새벽을 깨우는 흰색의 임마누엘찬양대(온 세계 만민 다 기쁜 찬미 하여라) 그리고 검은색으로 맞춘 호산나찬양대의 힘차고 웅장한 찬양이 본당을 가득 채우며 특별찬양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연합찬양대와 각 특별단체의 연습과 준비는 아름답고 화려한 색을 보여주었고 열심히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맛있는 저녁식사로 섬겨 주신 봉사부 관계자분들, 주중 연습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합찬양대 대원들, 각 단체에서 지휘와 반주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에게 찬양은 나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 찬양대 20년 근속 -



글 | **채성애** 권사(갈릴리찬양대)

2025년도 음영부헌신예배에서 20년 근속을 받게 되어 수상자석에 앉으니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부 3학년 때에 찬양대에 섰을 때 대학부 선배들에게

서 “너는 고3이 찬양대에 섰니?”라고 핀잔

들었던 기억부터, 고등부를 졸업하면 누구나 교사와 찬양대를 같이 해야 해서,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기만 했던 기억, 성탄절 칸타타를 한복 입고 찬양했던 기억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사와 찬양대를 겸할 수 없다.”라는 방침에 따라 아쉽게 찬양대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샤론 찬양대는 수요일에 찬양하니까 겸할 수 있다는 당시 경흥국 음영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대에 섰을 때의 감동, 코로나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가 10명 이하의 대원으로 중창단처럼 강대상 앞에서 찬양했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암 수술과 항암치료로 잠시 찬양대에 설 수 없었지만, 잘 치유해 주셔서 다시 찬양대에 서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주일마다 고등부와 중보기



딸 찬미와 함께

도를 마치고 갈릴리찬양대로 가는 길이 꽃길같이 향기롭습니다. 제게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 박영길 집사와 임신하기 전부터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이름을 ‘찬미’와 ‘찬양’이라고 미리 지어두기도 했었습니다.

갈릴리찬양대의 초대 대장이었던 남편(박영길 집사)과 딸(박찬미 집사)과 갈릴리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함이 큰 감사이고 기쁨인데, 2025년도에는 박영길 집사가 봉사부여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으로 큼니다. 아직 ‘위암’ 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완치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로 부르시기 전까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찬양대원으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 찬양곡을 부르면서 느끼는 희열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 찬양대 10년 근속 -




글 | 연상훈 안수집사(호산나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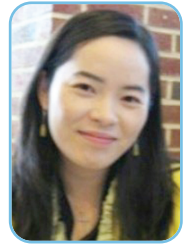
저는 2015년부터 영은교회 호산나찬양대원으로 임명받아 10년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처음부터 나 자신이 음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발성이나 목소리가 좋지도 않은 것 같아 찬양대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예배 찬양곡을 합창으로 부르면서 느끼는 희열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회중에 계신 성도들이 은혜롭게 찬양을 들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찬양대 소속이라는 것을 뿌듯하게 느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근속기간 내내 이러한 희열과 감동과 뿌듯함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찬양대원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의 만족을 탐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합창이 잘 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나 자신이 느끼는 희열과 감동, 성도들이 감동 받은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오는 뿌듯함은 모두 나의 만족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떠나, 찬양의 본질을 떠나 나의 만족을 위해 찬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일 찬양에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큰 회개가 있는 다음에 찬양 연습을 할 때면 가사

를 꼼꼼히 묵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받게 되는 메시지가 찬양곡의 가사에도 명확하게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느꼈던 희열과 감동과 뿌듯함이 이처럼 미흡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움과 가슴 벅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악보와 찬양도서를 관리하는 관리부장을 4년간 맡으면서 모든 대원이 바로 그런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예배 준비를 위한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10년째 되는 올해부터 호산나찬양대의 '대장'이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있었던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귀감이 되는 찬양 대장님들과 귀한 대원들을 만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대 관련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은 모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10년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유아부 교사, 기도로 물들어가다

글 | 차세원 통신원(유아부 교사)



을 내어서 찬양 준비를 하였고 우리 유아부 기도회를 위한 찬양팀이 결성되었다. 무엇보다 박철진 집사님은 드림으로 섬겨주었다. 30분의 찬양시간과 손예지 전도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나를 알아가고 또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로 다른 사람을 알아가며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3일(금)~24일(토), 영은설악센터에서 34명의 교사가 처음으로 1박 2일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교사가 기쁨으로 함께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을 아는 교사들은 각자 회비를 기쁨으로 내고 참여했다. 3분의 2가 넘는 교사들이 청년이고, 이중 절반은 학생들인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음에 감사하다.

도착해서 간단한 교제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이덕형 안수집사님이 손수 바비큐를 준비해 주셨다. 아름다운 영은설악센터에서의 저녁 만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고 가장 멋진 식탁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교사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 교사들은 따로 시간

다음 날 아침에는 로마서 8장 31~39절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조를 나눠서 큐티 내용도 함께 나눴다. 매일 전도사님이 올려주는 큐티 내용을 눈으로 보고 '아멘'으로만 참여했는데 함께 마주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예배당 정리를 하고 준비된 점심까지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교사 몇 명의 찬조로 가평 양떼목장으로 마실을 갔다. 영은설악센터에서 15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요즘 시대에 이번 유아부 1박 2일은 기도로 물들어가며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글 | 박선민 전도사

전도특공대, 꿈자람부!



〈어린이 4명리 전도지〉 일부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은 다만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아직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 꿈자람부 아이들은 이번 여름, 4주간의 말씀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도특공대로 훈련받고 세상으로 출동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꿈자람부는 히즈쇼 <복음전도학교> 교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주 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2주 차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3주 차에는 십자가 사랑,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4주 차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말씀 교육과 함께, 아이들은 전도 대상 친구를 정하고,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카드에 친구에 대한 소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또한, <어린이 4명리 전도지>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

하는 실습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8개 조로 나뉘어 부서 밖으로 나가 교회 어른들(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등)께 직접 복음을 전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부서 안에서 다른 어린이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친구에게 줄 작은 선물도 아이들이 직접 포장하며 정성을 담아 준비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실습해 본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전도 대상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접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가정 심방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가 이루어지면, 교역자와 교사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꿈자람부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가 전도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꿈자람부 교사들은 이 계획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간이었던 <복음의 코이노니아>

6월 8일 주일 오후예배는 <복음의 코이노니아> 예배로 드렸다. 신요한 목사님은 “몸된 교회”(고전 12:12-13)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 예배 참석자들은 예배 전에 받은 번호표대로 같은 번호가 한 조가 되어 모였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영은, 색을 입히다(color)>로, 우리가 지녀야 할 세 가지 신앙의 축을 색으로 표현하였다. ‘빨강’은 예배, 양육 및 교육, ‘노랑’은 봉사과 교제, ‘파랑’은 전도와 선교를 의미한다.

이날 진행된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두 번째 색, 노랑이 지닌 상징 중에 교제, 즉 코이노니아에 해당된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어로 공동체 혹은 친교를 의미한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였다.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복음의 코이노니아’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다.

우리 조는 7번 번호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유아부 손예지 전도사님의 인도로 7명이 각자가 받은 질문지를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 전도사님은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미술이었다고 한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고 싶은 순간은?”이란 질문에 이상의 장로님은 과거로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미래에서는 천국이 어떤가 보고 싶다고 말



각자가 뽑은 질문지를 들고 있는 7조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음식은?”이란 질문에 노영명 안수집사님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아닌, 피자나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유럽식 음식이라고 답한다. 의외였다. 나의 질문은 “실패할 확률이 0%라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이었다. 나는 “광화문 큰 빌딩에 영성카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7명은 질문과 답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세상은 ‘익명의 사회’가 되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내 옆자리에 앉은 성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익명의 사회를 치유할 명약이라고 선포한다. 우리 교회는 익명의 공동체가 아닌 ‘복음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3월 16일에 이어 6월 8일 주일에 가진 두 번째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모두에게 ‘명약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글 : 김명희 기자>

영은 늘푸른학교 야외학습을 다녀와서



글 | 권연상 안수집사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영은 늘푸른학교 춘계 야외학습이 5월 21일~22일까지 1박 2일 동안 85명의 학생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기도 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경으로 출발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맛있는 능이백숙으로 식사를 마쳤다. 진남역 레일바이크를 타고 신록과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강변을 여행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석탄박물관을 방문했다. 거미열차를 탑승하여 시원한 동굴을 지나며, 중생대 파충류인 거미와 공룡, 뱀 등의 습곡 산맥 속의 늪지대에서 생존하는 파충류의 모습들을 관찰했다. 1일 차 학습 일정을 마

치고 문경새재로 이동하여 <자연과 밥상>에서 채식 밥상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문경관광호텔에 도착하여 수요일에 배를 드렸다. “오직 예배”라는 최광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1일 차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배정된 숙소에서 피곤한 몸으로 취침했다.

2일 차 학습코스로 옛길박물관과 왕건 세트장을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수프와 간단한 과일과 계란으로 식사를 마치고,

늘푸른학교 학생들과 함께 문경새재 옛길박물관에 도착했다. 해설사님의 안내에 따라 1~2층 전시실에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옛길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문경새재 아리랑과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권섭(옥소) 선생님의 문학과 시집을 살펴보았다. 이후 왕건 세트장을 방문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사극 촬영장을 관람하고, 문경새재의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난 화초동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일정의 마지막 코스인 충주 우림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작약 꽃으로 수놓은 정원을 산책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늘푸른학교 춘계 야외학습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와 감사로 마칠 수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을 마치고

6월 15일 주일 오후예배 시 2025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1학기 장년신앙교육은 총 7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동영상 녹화 강의 4개, 현장 및 온라인 강의 3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총 7개 강좌 358명이 신청하여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강좌별로 6주~8주간 교육을 받아 총 314명이 수료했다. 다음은 강좌별 대표 수강생의 소감문이다.



글 | 김은선 집사

■ 어거스틴과 함께하는 고전산책/강사 : 한진구 목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름도 어려운 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길이신 구주가 좋기는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싫었습니다.” 이 글을 대하는 순간 편안하고 안일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싫은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이번 강좌를 통해, 그 옛날 저자가 뜨거운 감동으로, 빛으로 마음에 모셔 들인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전히 환히 미소 짓고 계시고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은혜로 임하실 분임을 확실히 느끼

게 되었다.

■ 알쓸중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종교개혁의 잡다한 지식”/강사 : 이준희 목사

이번 장년신앙교육 “알쓸중잡” 과정을 통해 종교개혁의 흐름과 그 의미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단지 교리 논쟁이나 제도 개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었다. 신학은 단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실천과 순종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우리도 오늘날의 신앙 현실 속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글 | 이도수 장로



글 | 박건상 집사

■ 큐학행, “큐티의 확실한 행복”/강사 : 최광주 목사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Quiet Time)이라고 해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다. 최광주 목사님은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읽기, 묵상, 적용, 나눔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적용하려 하니 어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였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다. 큐티는 절대 정답이 없다는 말씀



에 다시 마음을 정리했다.

이번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90% 완성)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집중이라고 생각한다.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이 소란스럽고 매번 시간이 달라져서는 온전한 큐티를 하기 힘들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이었다.

■ 뉴 노멀 시대, 영적 예배로의 초대/강사 : 임성빈 목사(장신대 명예교수)

〈뉴노멀 시대, 영적 예배로의 초대〉라는 주제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적인 변화나 교회 프로그램의 초창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었다.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올바르게 살아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글 | 박형훈 집사



글 | 조지연 집사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강사 : 정성훈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방대한 분량과 세밀하고 체계적인 교리 내용에 압도되었다.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로, 통합교단 헌법의 신학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내 신앙의 중심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은혜를 누렸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마음속에 막연히 품고 있던 신앙적 질문들과 궁금증에 대해 선명한 답을 찾아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믿음을 다지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 구약의 숲/강사 : 신요한 목사

영은교회에서 매학기 진행되는 장년신앙교육! 이번 학기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특히나 이번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인 아버지와 같이 들으면 좋을 강좌가 어떤 걸까, 고민하며 신중히 선택했다. 여러 강좌 중에 고른 것은 구약성경통독이었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다 같이 함께 시작한 구약성경통독. 아버지는 어떤 반응일까?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함께한 3월 11일부터 5월 5일까지 8주의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성경읽기로 좀 더 많이 대화했고, 나눔의 시간이 더 생겼다.

성경을 처음 읽으신 아버지는 생각보다 성경읽기를 해 보니 좋다면서 구약성경통독이 끝난 이후에는 구약의 앞부분도 읽어야겠다면서 지금도 읽으신다. 성경읽기가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계속 읽어보시겠다니! 할렐루야!



글 | 이정은 집사



글 | 김석진 장로

2025년 부흥사경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마음”



지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영락교회 김운성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가 열렸다. 김운성 목사님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땅끝교회에서 28년간 시무하시다가 2018년부터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계시며, 특히 청소년기를 도림교회에서 보내면서 영은교회를 잘 알고 계셨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을 언급하며 다소 무거운 철학적 소재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전도사나 군대 시절 등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을 말씀하실 때는 성도들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말씀에 푹 빠져들게 되었다.


이번 부흥회는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편을 선정하여 저녁과 새벽 집회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시편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말씀이다.

첫 번째 집회(6월 2일, 저녁)에서 “깊은 곳에서 받을 은혜”(시편 130:1~8)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이런 깊은 곳은

원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말씀하시면서 부흥사경회를 시작하였다.

강사 목사님의 영적 스승이었던 한신대 이준표 목사님과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성도는 가장 작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며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집회(6월 4일 저녁)에서 “밤을 깨우는 사람”(시편 134:1~3)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밤새도록 등잔불을 지키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내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 생활에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인내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고(故) 이광인 은퇴안수집사 교회장(教會葬)



지난 6월 2일 월요일 고(故) 이광인 은퇴안수집사의 교회장(教會葬)이 있었다. 고(故) 이광인 은퇴안수집사는 1950년 대구 남산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975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

였으며, 1998년 안수집사로 임직받으신 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시다가 2025년 6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고(故) 이광인 은퇴안수집사는 박혜숙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여은, 여진 2녀가 있다.

다음은 한경식 은퇴안수집사의 조사이다.

조사 (弔辭)

사랑하는 고(故) 이광인 집사님

집사님은 1998년에 임직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던 중에 2020년 은퇴하시고,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이광인 집사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깊은 슬픔과 아쉬움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언제나 따스한 마음과 깊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고, 대화를 나누며 기뻐했던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족 캠프에서도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캠프 가족의 안전을 챙기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차량 통제를 자처하셨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서면서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며 위로해 주셨던 배려심 많은 집사님이었다고 후배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에서 오신협력목사님들이 계셨을 때는 언제나 본인이 받은 달란트로 겸손히 섬기셨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셨던 집사님이 어느 날 병

원에서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며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며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항암치료는 모두 마쳤다고 하여 감사하며 서로 대화도 나누었는데, 몇 주간 안 보여 알아보니 몹시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서 우리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지만, 집사님이 남기신 따뜻한 마음과 신앙의 발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고 슬프지만, 이제 집사님은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남겨진 유가족 분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집사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2025년 6월 2일
은퇴안수집사 한경식



제66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66기 전도폭발 훈련은 6월 8일 종강 예배를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한 3단계 훈련자들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1단계부터 품어온 다짐은 비신자이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기쁨이 되면서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고, 3단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보류였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앞으로도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세훈 청년)

이웃의 전도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할머니를 통해 온 가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7명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모두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진 자로서 4단계 훈련에도 순종하며, 기도와 전도로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H 집사)

훈련생들과 함께 복음 제시와 암송에 힘쓰며 전도폭발 훈련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4단계 훈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상순 집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목사님과 훈련 선생님, 스텝분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위한 주의점과 유익을 잘 알려주셔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장명순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폭발 3단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2단계 때 친구 아내의 눈물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느꼈고, 그 감동이 3단계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기들과 강사님의 격려로 끝까지 훈련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단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동수영**

(김재원 집사)

교회학교 아동부 제자학교 비전트립

2025년부터 영은교회 아동부(유·초·소)는 제자학교의 교육과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상반기는 구약, 하반기는 신약을 주제로 각 부서에서 교재를 정하여 제자학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상반기에는 학생들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배웠다.

공부한 말씀을 몸으로 더 느끼기 위해 아동부는 6월 21일(토), 제자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인천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던 여러 문화를 체험했다. 글

과 그림을 통해서만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믿음의 선배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행** (글 : 김찬영 전도사)



교회학교 아동부 영등포노회 어린이대회

영은교회 아동부(유·초·소)는 5월 17일(토) 도림교회에서 열린 영등포노회 어린이대회에 참여했다.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성경암송, 글짓기, 그리기, 독창, 중창, 워십 등 총 60명의 아동부 학생들이 다양한 부문에 출전했다. 매해 열리는 어린이대회이지만, 올해는 교회마다 참가하는 학생의 수가 유독 많았다. 그래서인지 더 치열하고 경쟁력 있는 대회가 되었다. 영은교회 아동부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각 부서 담당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했다. 그 결과 40명의 학생이 다양한 부문에서 입상했다. 참여한 아동부 학생들은 성경을 공부

하며, 암송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해보고, 친구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찬양, 율동 연습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행** (글 : 김찬영 전도사)





글 | 장미애 전도사

중보기도(영은300기도용사) 사역

중보기도부는 교회의 부흥과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영은300기도용사>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과정인 중보기도자학교를 운영하며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 제7기 이론과정을 마치고 실무과정인 실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28명과 제6기까지 세워진 <영은300기도용사> 184명이 쉬지 않고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중보기도 사역이란?

중보기도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외에 다른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타적인 기도인 만큼 가장 고상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사역은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입니다.

2) 영은300기도용사(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려면?

- ① 자격 : 영은교회 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보기도자학교 훈련과정을 마치고 중보기도자로 헌신 서약하여야 합니다.
- ② 모집 : 연 2회(3월, 9월) 모집하여 개강합니다.
- ③ 훈련 : 이론과정(8주)과 실무과정(중보기도의 실제)을 모두 마치고 수료한 후에<영은

300기도용사>로 임명합니다.

3) 중보기도 사역자가 하는 일은?

① 주중 중보기도 사역

주중 평일에 중보기도실(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만 출입 가능)에서 성도들이 요청한 개인 기도제목과 교회와 담임목사님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합니다.

② 주일 중보기도 사역

주일 1부~4부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순서와 동일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 예배참여자 모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합니다.

▶ 개인 중보기도 요청하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요청이 많아야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은 중보기도 카드(교회 1, 3층 비치) 또는 영은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요람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응답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보기도,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었다



글 | 김효영 성도
중보기도자학교 7기 훈련생

중보기도자라는 이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였다.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인성이 좋으며 좀 더 따뜻한 사람인가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기도할 해야만 하는 사람이 생겼다.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고통받는 지인을 보며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교회에 전도도 해보고, 내 시간을 쪼개어 그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의 정신도 같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의 괴로움을 배가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나의 기도와 전도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보기도자 수업을 들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수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이를 위한 중보기도는 크리스천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명제는 주님의 명령처럼 명확하게 각인되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권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를 위한 실천의 방편으로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가르침은 나의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할 만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까?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한데 내

가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릴 자격이 과연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제5강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를 배우며 내 생각과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연약한 나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다. 특히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는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하지 않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기도의 범위와 한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얼굴을 알고 교제하는 지인을 넘어 교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확장성이 놀라웠다. 중보기도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넘어 전 세계 민족과 열방,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은 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처럼 영적 지평을 넓혀 주었다.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던 내가 과연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없진 않지만, 8주 동안의 중보기도자 수업은 중보기도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강의를 진행해주신 장미애 전도사님과 스태프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

2025 영은교회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영아부	7/5(토)-6(주)	영아부실
유아부	7/19(토)-20(주)	유아부실
유치부	7/12(토)-13(주)	유치부실
유년부	7/25(금)-27(주)	유년부실
초등부	7/30(수)-8/1(금)	포천염광수련원
소년부	7/27(주)-30(수)	포천염광수련원

중등부	7/27(주)-30(수)	포천염광수련원
고등부	8/3(주)-8/6(수)	홍천가람리조트
꿈자람부	7/28(월)-8/9(토)	가정심방
아동부 찬양대	8/9(토)	영은교회
청년1부	8/21(목)-23(토)	성도교회 할원수영관
청년2부	8/14(목)-16(토)	포천 K수련원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교육부 여름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2.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3. 준비과정과 마치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애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